

국제초등학교 교실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의 언어적 특성과 의미에 대한 언어인류학적 연구*

조강제**

본 논문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들의 언어사용 양상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의 사회적·맥락적 의미를 고찰한다. 영어 사용의 규범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국제학교에서 학생 대다수를 이루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콩글리시는 영어와 한국어와 달리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3의 언어자원이자 말하기 양식으로 자리한다. 연구자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의 이론틀에서 국제학교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의 특수한 위치를 화용론적·상위언어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의 언어적 특징들을 밝힌다. 이는 표준 영어와 구분되는 영어의 변이형으로서 콩글리시의 특징들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이어서 한국인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의 전략적 활용에 주목한다. 특히 비공식성과 친밀감의 상황변의어로서의 기능, 비밀스럽고 유희적인 말놀이로서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학교 성원들의 담론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의 의미를 밝힌다. 이때 학생들은 콩글리시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호작용적 실천의 차원에서 보인 콩글리시의 가치와 불일치한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주요개념〉: 국제학교, 콩글리시, 언어자원, 상황변이어, 말놀이

* 이 논문은 Society for East Asian Anthropology Conference 2016 (2016. 6)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2016. 2)의 2장, 4장, 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된 글임을 밝힌다. 세심한 심사와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1. 서론

일반적으로 콩글리시(Konglish)는 한국 사회에 영어가 등장하며 언어 접촉 상황에서 한국어 언어체계 내에 영어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변형을 거쳐 차용된 외래어 또는 한국어 언어체계의 간섭을 받아 변이된 영어로 인식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콩글리시는 “한국식으로 잘못 발음하거나 비문법적으로 사용하는 영어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정의된다.¹⁾ 이 경우 콩글리시에 대한 정의는 언어 접촉의 과정에서 나타난 영어의 지역 변이어가 아닌 ‘잘못된’ 영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 사용의 내부 원(Inner Circle) 국가(Kachru 1986)²⁾의 영어만을 적법한 영어로 평가하는 ‘표준 영어 이데올로기(Standard English Ideology)’(Bhatt 2002)가 자리할 것이다. 이는 칭글리시(Chinglish), 잭리시(Japlish)의 정의에서도 공유되는 특성이며(Kent 1999), 외래어로서의 콩글리시에 대한 가치 평가는 한국 사회에 지배적인 “정확한 영어의 헤게모니”(Park 2009: 109)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음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 영어의 높은 가치와 교육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영어가 포용·변형된 형태로서의 콩글리시에 대한 언어학 혹은 언어인류학의 학문적 논의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정

-
-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검색일: 2016년 2월 19일)
 - 2) 카츠틀루(Kachru1986)는 영어의 세 동심원 모델로 영어 전파의 과정에서 세계 각 국가들에서 영어의 지위를 기준으로 세 개의 원을 제안한다. 내부 원(inner circle)은 영어가 제1언어이자 모국어로 자리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이에 속한다. 외부 원(outer circle)은 영어가 제2언어이자 중요한 공통어로 자리하는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등을 말한다. 확장 원(expanding circle)은 영어가 공식적 지위는 없지만 중요한 외국어로서 교육되는 국가들이며 한국은 이에 속한다. 박과 위(Park and Wee 2009: 390)는 부르디외(Bourdieu 1991)의 “언어 시장(linguistic markets)”의 개념을 통해 세 동심원 내 영어 변이형들에 대한 가치 및 태도의 차이를 지적한다. 내부 원의 영어는 표준형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는 반면 외부 원의 영어는 지역 변이형으로서 가치가 이보다 낮다. 마지막으로 확장 원의 영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주로 나타난다.

의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콩글리시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대부분 외래어로서 한국어 언어체계 내에서 콩글리시 단어의 조어 규칙 및 동기를 발견·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켄트(Kent 1999)는 콩글리시 어휘를 (i) 원어 발음에서의 변형만을 거친 단어 (초콜릿, 커피 등), (ii) 한국어 단어와 영어 단어가 조합된 합성명사 (비닐 봉투, 방울토마토 등), (iii) 한국식으로 축약된 영어 단어 (리모컨 등), (iv) 기존의 한국어 단어를 대체한 외래어 (라이터, 파킹 등), (v) 의미론적 변형을 거친 유사 외래어(pseudo loanwords)(오바이트, 헌팅 등)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Kent 1999: 201-202). 이러한 형태론적 유형 외에 의미론적 관점을 더해 김해연(2007: 33)은 차용의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 범위의 확장/축소가 나타나는 단어(cup, glass, mug를 포괄하여 원래의 의미를 확장시킨 ‘컵’, ‘판매’라는 일반적인 뜻이 ‘할인판매’로 축소되어 사용되는 ‘세일’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밖에 김연주·이진수(2014)는 콩글리시를 언어 습득과정에서 생겨나는 언어 형태이며 영어 어휘습득에 있어서 콩글리시가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구조화된 학습 자료로서의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처럼 연구 대상으로서 콩글리시는 주로 어휘 차원의 외래어로서 그 정의가 한정되어 왔다.

반면 최근에 들어서는 콩글리시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눈에 띈다. 남(Nam 2010)은 콩글리시를 한국인 화자가 외국어로서의 영어 습득 과정에서 모국어인 한국어와의 접촉에 의해 나타나는 중간언어(interlanguage)로 정의한다. 이때에 콩글리시는 단순히 한국어 언어체계 내에 영어 단어가 차용된 형태가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나름의 체계를 지닌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된다. 이에 분석적으로도 단어 단위에서의 음운론적·형태론적 연구 외에도 문장 단위의 통사론적·의미론적 분석,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공손(politeness) 전략에서의 차이를 중심으로 화용론적 분석을 제시한다. 로렌스(Lawrence 2012)는 ‘잘못된’ 영어, 피진어, 크레올과 같이 단순화된 외래어, 혹은 중간언어와 같은 용어로는 콩글리시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콩글리시를 독립적인 언어 변이형

은 아니지만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 사이의 창의적인 합성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발생과 소멸이 반복되며 유동적으로 변형되는 언어 접촉에서 발생한 일상어(vernacular)로 정의한다(Lawrence 2012: 73).

이외에도 안(Ahm 2014)은 한국 영어 교사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콩글리시와 교체 사용될 수 있는 용어로 한국식 영어(Korean English)를 제시하며 콩글리시/한국식 영어를 외래어 단어의 범주에서 한국에서 쓰이는 영어의 지역 변이형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그 의미 범주를 확장한다. 이때에 콩글리시는 카츠루(Kachru 1986)의 영어의 세 동심원 모델의 확장 원(expanding circle)에 속한 영어의 변이형으로 그 활용 가치 및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난다. 반면, 심재형(2016)은 앞서 안이 제안한 한국식 영어와 콩글리시를 달리 정의하여 한국식 영어를 영어의 변이형으로, 콩글리시를 ‘잘못된’ 영어 사용으로 한정짓는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관련 연구의 수가 부족한 가운데 콩글리시에 대한 정의는 여러 차원에서 제시되었으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작게는 외래어로서 차용된 일련의 단어들에서 크게는 나름의 음운적, 문법적 체계를 지닌 영어의 지역 변이형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그 정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콩글리시 관련 연구는 주로 어휘의 조어 규칙을 기술, 분석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콩글리시를 영어의 변이형으로 정의하며 그 언어적 특성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도 분석되는 자료의 대부분은 연구자의 직관적 판단에 근거해 수집한 단편적인 사례들 혹은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인식 및 언어 태도를 다루는 데에 그친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제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의 말 사례 분석을 통해 그 형식적 자질이나 사회적·맥락적 요인을 탐구하는 언어인류학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의 변이형으로서 콩글리시의 범주를 인지하며, 특히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영어 습득의 교육적 차원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콩글리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미흡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한국어의 일부로 수용

되어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외래어인 단어 차원에서의 콩글리시와 달리 한국어 단일 언어 사회인 한국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콩글리시가 영어의 변이형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 자체가 매우 특수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영어 열풍’(Shim and Park 2008)이라 표현될 정도로 영어 교육의 과열 양상이 두드러지지만 실제로는 한국어 단일 언어문화에 가까운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 사이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영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언어 자원이며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상황 또한 학원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서가 아니라면 일상적으로 마주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Park 2010). 이에 영어의 변이형으로서 콩글리시는 한국사회 내 일상적인 말행위로서 관찰되기는 어려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영어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콩글리시의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지닌다. 한국의 교육시장에서 영어의 가치는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확산되면서 영어는 세계적으로 사회문화적 위세를 지닌 대표적인 국제어로 자리하게 되었다(Crystal 2003; Mufwene 2010). 세계 정치·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는 공용어로서의 가치를 지닌 영어의 습득은 세계화된 신 경제체제(globalized new economy)에서의 성공을 지표하며(Heller 2003, 2010), 이에 수많은 국가들에 영어 교육을 중시하는 교육 담론이 힘을 얻게 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교육 담론의 확산은 영어가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상징적 언어자본(Bourdieu 1977)으로서의 가치를 굳건히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영어는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승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자리하며 영어능력이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사회자본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난다(최셋별 2003). 특히 2000년대를 기점으로 국제적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교육 담론이 지배적으로 자리하면서 영어교육의 초점은 필수적인 외국어 교과목에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사용 가능한 영어능력의 강조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었을 때 한국사회 내 영어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정책적으로 나타나는 영어 교육 담론, 한국에서 영어 의사소통의 양상, 영어

능력에 대한 이데올로기 등 영어가 언어자본, 문화자본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여러 층위에서 탐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Park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콩글리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서 영어 의사소통 양상과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말하기 양식으로서 콩글리시의 의미에 대해 주목해 볼 수 있다. 한국사회 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조기유학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에 외국인학교를 제외하면 몇몇 사립학교에서 시행되었던 영어몰입교육(immersion education)을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국제학교, 영어유치원의 등장을 이끌어 낸다. 경제특구지역의 영어교육도시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의해 유치된 국제학교 외에도 비인가 국제학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 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어학원들을 중심으로 영어 회화교육 시장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영어 사용이 강제되는 영어몰입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은 영어를 단순히 외국어가 아닌 교육의 주 매개어로 접하며 공간적, 상황적으로 한정적이지만 영어를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언어자원으로 활용한다. 이때에 콩글리시는 영어의 한 변이형으로 인식·활용되며, 이에 국제학교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콩글리시의 사용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현장이 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논문은 한 국제초등학교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의사소통에서 콩글리시가 활용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이에 콩글리시를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이론틀로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ethnography of communication)을 활용한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에서는 언어의 지시적 기능 외에도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사용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능,³⁾ 특히 사회적 기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왕한석 1996).

3) 여기에는 야콥슨(Jakobson 1960, 왕한석 1996: 28에서 재인용)이 말한 감정 표시적(emotive), 능동적(conative), 친교적(phatic), 고차언어적(metalingual), 시적(poetic) 기능, 그리고 하임즈(Hymes 1962, 왕한석 1996: 29에서 재인용)가 덧붙인 맥락적(contextual) 기능이 포함된다(왕한석 1996: 28-29).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주제를 다룬다. 하나는 국제학교 내에서 통용되는 콩글리시의 언어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먼저 콩글리시의 발음 및 단어의 조어와 같은 어휘적, 문법적 특성을 살피고 이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의 전략적 활용을 탐구하는 것이다. 특히 상황변이어(register)로서의 기능과 말놀이(speech play)로서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다. 교실수업의 맥락에서 콩글리시는 표준 영어와는 구별되는 언어적 특징들을 지니며 의사소통의 주제나 영역, 청자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황변이어(김용진 2012)로 기능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준 영어 사용만이 올바른 의사소통의 규범으로 여겨지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언어적 특질의 미묘한 전환을 통해 친밀감, 연대감과 같은 비지시적인(non-referential) 의미를 전달하는 양상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언어적 특질 및 말하기 양식의 전환은 수사적 전환(rhetorical switching)으로 이는 이중언어 코드전환(code-switching)과 유사한 기능을 지닌다(Ervin-Tripp 2001: 49). 또한 즉흥성이 특징적인 말놀이로서의 연행적 특성에 주목하여 수업 상황에서의 비밀스러운 유희적 말행위로서 콩글리시의 활용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콩글리시의 의미와 언어 태도를 고찰한다. 앞선 주제가 콩글리시의 화용적(pragmatic)인 기능과 의미를 대한 탐구라면 이 주제는 화용론적 실천의 차원과 대조되는 상위언어적(metalinguistic) 인식, 또는 담론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의 의미를 다룬다. 이를 통해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콩글리시는 정태적으로 기능하는 언어자원이 아니라 그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적인 것이며 그 의미 또한 절충과 타협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변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 민족지적 배경 및 연구방법

이 논문은 연구자의 석사학위논문의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언어 자료들

중에서 콩글리시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분석한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근교 경제특구지역에 위치한 A국제학교 5학년의 구성원들이다.⁴⁾ 구성원은 5학년에 재학하며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포함한다. A국제학교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되며 5학년은 총 58명이 세 반에 나뉘어 각 반이 19~20명으로 이루어지며, 6명을 제외한 52명의 학생들(한국계 혼혈 1명 포함)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한국인이며 한국어 모국어 화자이다. A국제학교에 재학하기 이전에 대부분 1년 내외의 짧은 외국 생활을 경험하거나, 한국 내 다른 국제학교에서의 재학 경험, 혹은 영어유치원 내지는 회화학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를 습득해왔다. 내국인 학생들의 경우 진학에 앞서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진학 이전에 이미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A국제학교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초등 교육 프로그램(IB Primary Years Programme)을 채택하여 5학년은 초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학년에 해당한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A국제학교의 개교 초기부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째 재학해 왔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학년 학생들에 비해 능숙한 영어 구사능력 외에도 학교에서의 언어사용 규칙에 익숙하고 이에 각 언어가 사용되는 적절한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지식을 공유한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또래 관계의 형성, 유지 및 변화에 있어서 전략적인 언어사용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바 본 연구에 적절한 연구대상으로 판단되었다.

A국제학교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데, 각 언어의 사용과 그 사용의 해석에 있어서의 규칙이 사회적으로 공유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언어공동체라 볼 수 있다. A국제학교와 같이 하나의 언어공동체에서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선택되어 사용될 때 언어 선택의 규범은 각 언어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각 언어의 사회적 기능과

4)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논문에서 인용되는 모든 제보자와 기관의 이름은 가명임을 밝힌다.

의미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에서 비롯되기 마련이다. 개별 화자의 스타일에 따라, 또는 언어 습득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학생들이 공유하는 언어목록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라는 두 가지 언어 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A국제초등학교에서 언어 사용의 공식적인 규범을 규정하는 것은 학교의 ‘영어방침(English Policy)’이며 이를 학생의 지도에 반영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모든 교실 한 벽에 한 페이지 분량으로 쓰여 붙여진 ‘영어방침’에서는 두 언어 자원에 대한 상이한 규범이 여실히 드러난다. 다음은 ‘영어방침’의 일부이다.

A국제학교에서 영어는 주 언어(primary language)로 모든 구성원이 말과 글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다. 영어 방침이 시행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A국제학교 구성원 모두를 포용될 수 있는 언어로서의 가치이다. A국제학교의 주요 목표에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의 향상이 있으며, 목표어에 대한 전체적 몰입 교육(fully immersed)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또한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영어방침’은 영어를 수업의 매개어인 동시에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주 언어(primary language)로 규정한다. 이에 수업 시간을 비롯해 모든 학교 내 공식적인 활동에서는 영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학교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에 영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영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꼭 사용되어야 하며 구사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습득되어야 하는 목표어인 동시에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공용어로서 사용이 장려된다.

반면 한국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감탄사, 혹은 영어에 서툰 학우에게 의미 전달을 돕기 위해 한 두 단어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며, 이외의 경우에 사용될 때는 제재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에 학생들은 이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을 비롯한 공식적인 학교 활동에 적절한 언어가 영어임을 지도받게 되며 이때에 한국어가 사용되면 제재받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 일련의 언어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학생들은 학교 내의 언어 사용의 규범에 익숙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종의 양층어 상황(diglossia)에 놓이며, 두 언어가 보완적 관계를 이루어 하나는 상층어(high language), 다른 하나는 하층어(low language)로 구분된다(Ferguson 1959; Fishman 1967). 국제학교의 한국인 학생들의 맥락에서 영어는 상층어로서 공식적인 영역과 활동에서 사용되는 외집단(out-group)의 언어인 반면 한국어는 하층어로서 비공식적인 영역과 활동에서 활용되는 내집단(in-group) 언어로 자리하는 셈이다.

본 연구는 2014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참여관찰 및 공식적/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지에 일주일에 4-5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생 및 교사들과 학교 일과를 함께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52명의 한국어 구사자 학생들 가운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입회 하에 참여에 동의한 45명의 학생들과 10명의 교사들로, 이들의 일상적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관찰과 더불어 공식적/비공식적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학교에서 연구자는 주로 관찰자이자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이 하는 대부분의 활동들에 참여하며 여러 상호작용의 상황들에서 언어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참여관찰의 장소 및 환경은 담임 수업이 이루어지는 각 반 교실들, 예체능 수업,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들과 체육관, 운동장을 포함한다. 또한, 보다 자유로운 언어사용이 가능한 점심시간의 급식실, 쉬는 시간의 운동장도 주요 관찰의 장소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주로 학생들 간에, 그리고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상황들을 녹음하고 기록하였다. 녹음을 통한 자료 수집은 모든 학생들의 IRB 동의서를 확보한 9월 중순부터 시작해 12월 중순까지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5학년 세 반의 수업 일정에 따라 관찰자와 보조교사의 역할을 오가며 각 반의 주요 학교 활동들, 쉬는 시간의 활동들에 전반적으로 참여하여 녹음하였다. 학생들의 자연스런 말행위를 채록하기 위해 연구 초기부터 상시 녹음기를 착용하며 녹음기와 필드노트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내용을 공개하여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하고 학생들의 언어 규범의 위반을 의도적으로 묵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장난스레 교사의 위치나 상황을 확인

시켜 주는 등 권위적이지 않은 비전형적인 어른(강나영 2015: 7)으로 다가
가고자 노력하며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자 하였다.

학생들과의 인터뷰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대부분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비구조적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그 중 총 1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9명의 학생들과 개별 인터뷰를, 각각 3명을 대상으
로 두 번의 집단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교사들과는 주로 구조적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10명의 교사들은 한국 국적의 한국어 교사
3명, 뉴질랜드 국적 1명, 미국 국적 3명, 캐나다 국적 2명, 피지 국적 1명으
로 한국어 교사 3명, 피지 국적의 교사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영어 모국어화
자였다. 이들 가운데 주요정보제공자가 되어준 담임교사 3명과 한국어교사
2명과는 2회의 구조적 인터뷰를 가졌으며 이외에도 수업 중 학생 개별과제
시간,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일상적 대화를 기반으로 비구조적 인터뷰의 시
간을 가졌다.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주로 국제학교에서의 영어교육, 한국어
교육에 관한 참여자의 의견과 생각, 한국어와 영어의 기능과 가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콩글리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국제학교 내 콩글리시의 언어적 특징

학생 대부분이 한국어 모국어 화자로 구성된 A국제초등학교의 맥락에서
콩글리시는 수업의 매개어로서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언어자원인 영어
와 모국어이지만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한국어라는 두 개의 중심적인 언어
자원들 외에 영어의 변이어로서 제3의 언어자원의 위치를 지닌다. 특히 교
실수업의 맥락에서 콩글리시는 영어 사용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한국인
학생들의 특징적인 말하기로 인식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학교 내 콩글리시
사용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유형별로 구분할 것이다.

실제 사용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는 영어를 기저 언어로 두는 지

역 변이형으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때의 콩글리시는 표준 영어의 통사구조를 기반으로 이뤄지지만 음운적 자질, 단어, 문법적 형태에 이르는 다양한 언어적 특질들에서 표준 영어와의 차이가 드러난다. 콩글리시는 영어능력의 미숙함 또는 무의식적인 말실수에서 비롯된 무표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유표적 전환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본 절에서는 콩글리시의 주요 언어적 특징을 (1) 변형된 외래어 사용 (2) 어조·역량의 과장된 조정 (3) 이중언어 동음이의어 또는 한국어 단어의 직역 (4) 문법규칙 위반으로 분류한다.

1) 변형된 외래어 사용

영어 문장의 발화 도중 한국식으로 변형된 외래어 사용은 주로 단어 차원에서 나타난다. 특히 많은 경우 발음에서의 차이가 이러한 경우에 속하며, 한국에서 외래어로 차용된 단어의 발음이 영어 원래 발음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영어 원어민에게는 불가해한 단어로 들린다. 이를테면 ‘양키스’라는 단어의 원래 영어 발음 [jæŋkɪs]인 반면 한국에서 외래어로서 수용된 발음 [jaŋkɪs]로 발음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다음의 두 사례는 교사와의 대화 중 말실수로 외래어 발음이 나타나는 사례이다.

<사례 1>

(i)

정우(남): On sunday, I watched Asian[as^hian]⁵⁾ game.

담임교사(남): Huh?

찬호(남): Asian[eɪʒən] game.

정우: Oh, Asian[eɪʒən] game, and then I went to play hockey.

(ii)

형우(남): So like, I was doing goalie[ɰolki].

5) 사례 내 콩글리시 표기에 있어서 발음상의 특징의 강조를 위해 영어 단어 뒤에 발음기호 표기를 덧붙인다.

교사(남): You were what?

형우: I was doing goalie[kolki].

교사: You were the goalkeeper? A goalie?

형우: Yea, yea, yea.

〈사례 1〉에서 (i)은 월요일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둘러 앉아 주말에 했던 일들을 공유하는 장면이고 아래의 (ii)는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교사에게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알리는 장면이다. (i)의 “Asian[as^hian],” (ii)의 “goalie[kolki]”는 모두 한국식으로 발음된 영어 외래어에 속한다. 두 경우 모두 학생들이 교사와의 대화 중 의사의 전달과정에서 발음의 차이로 인해 불발된 사례로, 두 경우 모두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인지적 말실수(구현 정 2002)일 것이다. 학생들은 각각 ‘Asian’을 [eɪʒən] 대신 [as^hian]으로, ‘goalie/goalkeeper’를 [góuli]가 아닌 [kolki]라 말하면서 영어 원어미인 교사에게는 불가해한 어휘를 사용한다. 이때 정우가 말하는 “Asian[as^hian]”의 경우 한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외래어 중 하나인 반면 아래 사례의 “goalie[kolki]”의 경우 적절한 외래어 표현인 ‘골키퍼’에 첫 음을 된소리화 하고 마지막 글자를 생략해 부르는 학생들 사이에서 쓰이는 속어 형태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 전달에서의 실수는 위 사례에서는 친구인 찬호가 발음을 수정해주면서, 아래 사례에서는 교사가 되묻는 과정 중 지시된 단어를 유추하여 수정해줌으로써 정정된다.

2) 어조·억양의 과장된 조정

여기서는 영어 단어 또는 한국어 단어의 발음에 있어서 특정한 글자의 발음을 과장되게 조정하는 양상을 논의해 볼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성분의 조작은 지시적인 의미의 변화와는 상관없으며 주로 의도적인 웃음 유발의 장치로 활용된다. 이 경우 두 가지의 조정이 구분되는데 하나는 영어 단어의 발음을 마치 한국어 음운체계에서 발음 되듯이 과장되게 조정하는 경우이

며, 다른 하나는 한국어 단어의 발음을 영어 음운체계에서 발음되듯 과장되게 변형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경음(硬音) 첨가⁶⁾와 유음 발음 오류가, 후자의 경우 평음(平音)화(tense deletion)가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사례 2>

재연(남): I use your computer[komputa].

찬미(여): Oh re-ally[li-ally]⁷⁾?

하진(남): Oh, My dung-go! (웃음)

위 세 문장은 각각 다른 수업 상황에서의 잡담 중 다른 화자들의 콩글리시 말행위이다. 먼저 첫 줄의 사례에서 재연은 ‘computer’의 발음을 [komp utɑ]로 과장되게 조음하는데, 이때에 /c/의 발음을 경음화하여 /k/로, /p/를 /p/로 조작한다. 두 번째 문장의 경우 영어의 /r/과 /l/이 별개의 음소인 반면 한국어에서 /r/과 /l/이 구분되지 않는 음운체계 상의 차이에 천착하여 영어 단어의 발음에 있어서 /r/을 의식적으로 /l/로 조음한 사례이다. 이때에 찬미는 길게 늘이는 어조를 더해 과장의 효과를 더한다.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영어 발음에 있어서 영어와 한국어의 음소 상의 차이를 이용해 오류를 의도한 경우이다. 세 번째 문장이 나타나는 맥락적 배경은 조별 활동 시간에 뒤에서 몰래 다가와 엉덩이에 똥침을 놓은 친구에 대한 하진의 반응이다. 이 경우 앞의 두 사례와 달리 한국어 단어를 영어처럼 들리게끔 의도하는 모습에 주목해 본다. 향문(똥구멍)의 속된 표현에 해당하는 ‘똥꼬’의 조어에 있어서 경음(/t/, /k/)인 발음을 의도적으로 평음화(/d/, /g/)하여 영어 단어처럼 들리도록 의도한 경우이다. 이렇게 어조를 조작하는 사례들은 학생들이 가장 빈번히 활용하는 웃음 유발 장치로서의 콩글리시 사용일 것이다.

6) 경음이 아닌 소리(ㄱ, ㄷ, ㅂ, ㅅ, ㅈ)를 경음(ㄱ, ㄷ, ㅃ, ㅆ, ㅉ)으로 바꾸어 말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발화 상 길게 늘어지는 어조는 음절 사이에 -를 표기한다.

3) 동음이의어(pun) 또는 한국어 단어의 직역

<사례 3>

희연(여): You so stupid. Did you know? You are a bottle god.

승현(남): (연구자를 보며 웃음) What? You said bottle god to me?

위 사례는 수업시간 조별 활동 중 두 학생들이 말장난을 하는 장면이다. 이 사례에서 희연은 승현을 욕하기 위해 동음이의어와 그 번역을 활용 한다. 희연은 사람에게 향하는 욕에 해당하는 ‘병신’을 한 글자씩 각 글자와 동일한 소리를 지닌 동음이의어로 직역한다. ‘병(病)’을 ‘disease’가 아닌 ‘bottle’로, ‘신(身)’을 ‘body’가 아닌 ‘god’으로 직역함으로써 원래 의도한 ‘handicapped person’의 표현을 “bottle god”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의미적인 연관성이 없는 형태로 바꿔 말하면서 표현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형태이지만 실제 지시하는 의미는 청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전략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승현은 희연을 향해 말하는 와중에 시선은 보조교사로서 이 모습을 관찰 중이던 연구자를 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희연의 허용되지 않은 언어 사용을 고발한다. 이와 같은 글자 단위의 동음이의어 직역은 주로 욕이나 비속어와 같은 일탈적인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 주로 나타난다. 같은 맥락에서 이중언어 동음이의어(bilingual puns)⁸⁾의 사용 또한 빈번하다.

4) 문법규칙 위반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문법규칙의 위반의 유형으로 다음의 사례를 살펴볼도록 한다.

<사례 4>

근우(남): You defense, you wrong arm.

8) 이중언어 동음이의어(bilingual puns)란 다른 언어에 속한 두 단어 사이의 발음이나 형태적 유사성을 활용한 말놀이를 말한다(Sherzer 2002: 31).

지훈(남): Me no like comic book.

이 두 문장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다른 화자들이 발화한 사례들이다. 첫 문장의 근우는 체육 시간 조별 활동 중 상대방의 반칙을 지적하며 장난스러운 말투로 동사가 생략된 문장을 말한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의 지훈은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 상황에서 친구에게 문법규칙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 근우의 경우 완전한 문장 ‘You are on defense, you are using a wrong arm.’의 발화에서 동사 ‘are,’ 전치사 ‘on’, 현재진행형 동사 ‘are using’을 삭제한다. 지훈의 말에서는 주격 대명사인 ‘I’를 목적격 대명사 ‘me’로, 조동사 ‘do not’을 ‘no’로 대체한다. 이처럼 문법규칙 위반의 콩글리시 유형은 대부분 대명사의 대체, 동사의 삭제 혹은 복수형, 시제의 미반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의 영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의 언어적 자질은 이상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앞서 제시된 사례들에서 A국제학교에서 콩글리시는 무의식적인 말실수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언어적 자질을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난다. 이러한 콩글리시의 의식적인 활용은 특히 수업 시간 내에서도 특히 개별 및 조별 활동과 같이 비교적 공식성의 정도가 낮은 상황⁹⁾에서 친구들끼리의 대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난다. <사례 1>에서 보았듯 교사와의 대화에서의 콩글리시는 말실수이자 영어능력에서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행위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한국인 친구집단 내에서의 대화에서 콩글리시는 장난의 맥락과 같이 특정한 맥락 속에서 주로 활용되며 그 맥락 속에서 비지시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고 해석될 수 있는 말행위로 자리한다.

9) 수업시간 내에서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공식성의 정도에서의 차이가 달리 나타난다(Irvine 1979). 교사 중심의 교습 활동에서 공식성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때엔 모든 학생들이 교사의 말에 주목해야 하며 교사의 허락 여부에 따라서만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반면, 개별 및 조별 활동은 상대적으로 공식성의 정도가 낮다. 학생들은 5-6개의 작은 소집단으로 나뉘어 과제를 수행하며 교사는 각 조를 돌며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교사가 직접 지도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학생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과제를 진행하도록 허락받으며,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4. 상호작용 상황에서 콩글리시의 전략적 사용

A국제학교의 학생들에게 콩글리시의 유표적/전략적 사용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사나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이해하기 힘든 한국인 친구집단 내에서만 공유되는 배타적인 말하기의 방식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상호작용 속에서 콩글리시가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해석하는 양상들에 주목해 본다. 앞서 말했듯이 콩글리시의 전략적 사용은 어디까지나 한국인으로서의 동류의식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포래언어(peer talk)(강나영 2015: 2)의 말행위로 분위기의 전환, 친밀감, 유대감의 표출 그리고 웃음 유발이 주요한 비지시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콩글리시의 전략적 사용을 1) 비공식성·친밀감의 상황변이, 2) 웃음 유발의 말놀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다룬다.

1) 비공식성·친밀감의 상황변이

학생들에게 콩글리시는 주로 가벼운 분위기에서 친근한 말하기의 상황변이로 여겨진다. 상황변이어는 좁게는 대화 상황에서 내에서의 화제, 공식성, 청자와의 관계 등을 지표하는 발음, 어투(style) 등의 언어적 특성의 변이에서 넓게는 특정한 젠더, 사회 계층, 직업, 민족성과 같은 사회적 정체성 및 이에 대해 담론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stereotype)을 지표하는 언어적 특성의 변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Agha 2007: 81). 학생들이 친밀감, 유대감을 지표하는 상황변이어로서 콩글리시를 활용할 때에는 많은 경우 언어적 특성의 전환 외에도 장난스러운 어조로 바꾸어 말하는 등 부차 언어적 특징이 수반된다. 특히 수업시간에 친구들 사이에서의 대화에 콩글리시가 활용될 때에는 수업 활동의 공식성을 약화시키거나 상황적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조정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례 5>

연우(남): (윤제에게 손짓하며) You so busy!

윤제(남): I have so many snacks. (줄에 선다)

연우: (도운을 보며 엄지를 올린다) Bart, goot, goot.

주원(남): Bart, he said good.

도운(남): (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학생들을 이끌고 교실 밖으로 나간다)

연우: Bye, teacher.

위 사례에서의 해당 학급은 쉬는 시간에 맞춰 운동장에 나가거나 다른 수업으로 이동할 때, 귀가 시간에 맞춰 학생들이 문 앞에 줄을 서서 모두 이동할 준비가 되고 조용해지면 이동한다. 이때에 줄의 ‘백라인리더(back-line leader)’는 학생들이 모두 줄을 설 때까지 기다리고 모두가 조용히 나갈 준비가 되면 선두의 ‘라인리더(line leader)’에게 모두 준비되었음을 알리며, 그러면 선두의 학생이 교사의 허락을 받아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 역할은 매주 담당 학생을 바뀌가며 수행되며 해당 주에 도운(Bart)은 라인리더, 연우는 백라인리더의 역할을 맡았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으로 향하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들뜨고 어수선하기에 담임교사는 모두가 줄에 서고 조용히 할 때까지 운동장에 나갈 수 없도록 통제한다. 줄을 서는 과정에서도 영어 사용의 규범은 지켜져야 하기에 교사는 학생들이 영어로 이야기할 때에는 가만히 기다리지만 한국어가 들리면 제재한다. 이러한 맥락 하에 연우는 다른 학생들을 줄에 서도록 독려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동사를 삭제하고(“You so busy”), 영어 단어의 발음에 된소리 파열음을 삽입(“Bart,” “goot,” “bye”)하면서 콩글리시를 구사한다. 이때 연우의 콩글리시는 영어로 이루어졌기에 언어 사용의 규범에서 제재의 대상에 벗어나며, 맥락상으로도 공식성의 정도가 떨어지는 상황인 만큼 담임교사는 이를 묵인한다. 연구지의 세 학급 모두에서 줄을 서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학생들과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을 통제하려는 라인리더 혹은 백라인리더와의 갈등 상황은 빈번히 관찰되었다. 반면 이 사례에서 연우는 비록 줄을 세우고 이동을 통제하는 권위적인 역할을 수행하

지만 여기에 콩글리시로 장난스러운 어조를 더함으로써 진지하지 않은 분위기를 이끌어내며 학생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콩글리시의 활용은 친밀함을 표현함으로써 학습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의해 상징된 비대칭적인 관계를 완화하는 효과를 수반한 것이다.

<사례 6>

서준(남): Honda is Japanese, no?

민호(남): Honda is Japan, Hyundai[hjʌndæ] is Korean, Benz[béntsʌ] is Germany.

서준: (웃음) Stupid. It's not Benz[béntsʌ], its Mercedes.

위 사례에서 수업 활동의 일환으로 컴퓨터를 검색하던 서준의 질문에 민호는 소유격('Japanese,' 'German')으로 말해야 할 국가 이름을 고유명사 그대로('Japan,' 'Germany') 표현하고 브랜드 이름을 영어식('Hyundai [hjʌndai], 'Mercedes[mərséidi:z]')으로 발음하는 대신 한국어 표기법에 따라 읽거나 한국식으로 변형된 외래어("현대[hjʌndæ]," "벤츠[béntsʌ]")로 표현하며, 특히 '벤츠'의 경우 음절의 끝에 /w/를 삽입해 더욱 과장되게 조음한다. 이에 대해 서준은 민호의 장난스런 표현에 바보라고 놀리며 웃음 짓고 올바른 영어 단어를 제시하여 화답한다. 이 사례는 <사례 1>에서의 경우처럼 영어로 발화할 때에 한국식으로 변형된 외래어 단어가 콩글리시로 나타난 경우이다. 하지만 콩글리시 등장 맥락은 전혀 다른데, <사례 1>의 두 화자는 모두 교사와의 대화 상황에서 인지적 말실수로 인해 콩글리시로 전환한다. 반면 이 사례에서 화자는 친구와의 대화 중 의식적으로 콩글리시로 전환한다. 또한 이에 대한 서준의 반응은 민호가 의도적으로 콩글리시를 구사하여 농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에서처럼 콩글리시가 친밀감의 상황변이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올바른 영어 표현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어의 한국식 조어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콩글리시 사용이 친밀감의 상황변이어로 전달하는 비지시적인 의

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쌓인 친분과 서로의 언어능력에 대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콩글리시의 활용은 한국인 또래집단 내 친구들 사이의 유대감을 기초로 한다.

2) 웃음 유발의 말놀이

말놀이는 언어의 구성 요소들을 조합함으로써 유희적·예술적·시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언어사용을 포괄하는 범주이다(Sherzer 2002: 4). 그중에서도 동음이의어 말놀이는 의미적으로 연관되지 않지만 발음의 유사성을 지닌 두 단어가 활용되는 말놀이로, 동음이의어 말놀이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단어들의 다의성이나 동음이의성뿐만 아니라 연행적 특징을 비롯하여 말 상황에 대한 고려와 분석이 요구된다(강나영 2015: 9).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본 절에서는 콩글리시가 말놀이의 한 장르로 활용되는 전략적 양상에 주목한다. 특히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말놀이 또는 직역을 활용한 말놀이가 주로 나타나며, 주로 정해진 텍스트를 따르지 않고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 즉흥적으로 발화되는 점이 특징이다.

<사례 7>

하연(여): You are so Babo.

재균(남): I'm not Bob, I'm Bobby.

하연: (종이를 내밀며) Write it!

재균: Yea, I'm Barbie.

하연: (웃음) Barbie?

선미(여): (웃음) 바비 인형!

위는 수업시간 중 조원들이 아이디어를 구상하면 재균이 받아 적는 역할을 맡은 조별활동의 장면으로 하연은 재균이 계속 장난을 치는 게 못마땅한 상태이다. 이 사례에서 재균은 발음의 유사성을 지닌 영어와 한국어 단어들을 활용하는 이중언어 동음이의어의 말놀이를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먼저

하연이 재균에게 “바보(Babo)”라고 말하자 재균은 발음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를 영어식 이름의 애칭 형태인 “Bob”으로, 이어서 다시 ‘Bob’의 다른 애칭 형태인 “Bobby”로 바꿔 말한다. 하연이 이를 무시하자 다시 ‘Bobby’를 바비 인형을 지칭하는 “Barbie”로 변형시킴으로써 웃음 유발을 시도한다. 이에 하연은 본래 비난의 의도로 했던 말을 대화의 맥락에 전혀 관계없는 동음이의어로 전환하는 재균의 콩글리시 말놀이에 결국에는 실소를 터트리며 덩달아 옆에 앉아 있던 선미 또한 웃으며 “바비 인형”이라며 한 마디 덧붙인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비속어나 욕을 할 때 동음이의어나 직역을 활용한 콩글리시로 전환하는 전략을 이용한다. 앞선 <사례 3>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로, 학교에서 비속어나 욕의 사용은 금기시되며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러나 막 10대에 들어선 5학년 학생들을 비롯한 고학년 학생들은 이미 자극적인 언어 사용에 익숙하며 특히 친구들 간의 대화에서 비속어나 욕은 모욕의 의미 외에도 친근하고 장난스러운 말행위로 인식된다. 이들은 교사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일상적 대화에서는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곤 한다. 이에 대체적으로 비속어나 욕의 사용은 가벼운 비하나 상스러운 표현의 선을 넘지 않는 유희적 성격을 띠며, 웃음의 유발이나 친밀감의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의 언쟁 등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욕설이 오고가기도 하며 이러한 말행위는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에게 결코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스럽고 일탈적인 행위이다. 이 맥락에서 콩글리시로의 전환은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을 가려줄 수 있는 유용한 언어적 도구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속어 사용을 위한 코드 전환은 학생들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비밀스러운 말하기의 방식으로 자리한다.

<사례 8>

우현(남): (세호에게) Hey, hey, what is English for yeot?

다운(여): (세호에게) 옛이 영어로 뭐야? What is yeot in English?

세호(남): Korean candy.

(학생들 모두 웃음)

다운: Scott, you eat Korean candy!

위 사례는 동음이의어는 아니지만 한국어 표현의 직역이 말놀이에 활용된 사례이다. 이때에 우현과 다운은 세호(Scott)에게 모욕을 의도하는 영어 욕설인 ‘fuck you’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 ‘엇 먹다’라는 표현을 말하게끔 유도하는 과정에서 엇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묻는다. 이는 세호를 당황스럽게 만들어 놀리기 위한 유희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언어행위로 해석되며, 이때에 세 학생을 비롯해 인근에 자리한 학생들 모두 우현과 다운의 의도를 이해하고 세호가 “Korean candy”를 말하자 웃음을 터뜨린다. 이어서 다운이 ‘엇 먹다’라는 모욕적 표현을 “You eat Korean candy”라고 영어로 직역한다. 이때 해당하는 영어 표현 자체로는 모욕의 의미가 없기에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의 의미를 완화시키며 웃음을 유발하는 말놀이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학생들의 동음이의어 및 직역을 활용한 콩글리시 비속어로의 전환은 외국인 교사가 이를 알아들을 수 없으며 결코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전제 위에서 성립된다. 즉, 학생들에게 콩글리시 비속어는 비밀스러운 유희성의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틀(frame)로 활용되며 국제학교의 맥락에서 이러한 전략은 어른들이나 다른 외국인 학생들을 배제하며 한국인 친구집단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콩글리시의 전략적 사용은 한국인 학생들만이 공유하는 친밀감과 연대감의 상황변어이자 웃음 유발의 말놀이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콩글리시의 범주는 단순히 발음의 과장된 조작, 문법 규칙의 위반에서부터 영어 원어민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 직역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발음이나 문법적 조작은 교사들을 비롯해 외국인 화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변형의 범주에 속하며, 진지한 분위기를 장난스러운 것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을 교사들 또한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행위이다. 반면 이중언어 동음이의어 및 직역과 같이 콩글리시의 불가해한 성격이 두드러질수록 대화에 외국인 참여자를

배제하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행위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콩글리시의 활용은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외중에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유희적으로 활용하는 언어적 기제로 작용한다. 또, 서로 콩글리시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한국인 친구집단의 성원권을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화용론적 실천의 차원에서 콩글리시는 대화 참여자 간에 공유되는 한국인 정체성에서 비롯된 언어자원이자 이를 기반으로 하는 또래언어인 것이다.

5. 콩글리시에 대한 양가적 태도

한편, 콩글리시에 대한 상위언어적(metalinguistic) 인식이 실천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의 특성과 일치하는 지에 대해서는 교사나 학생들이 말하는 콩글리시의 의미에서 드러날 것이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드러난 콩글리시에 대한 평가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드러나는 긍정적인 의미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이 절에서는 국제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콩글리시에 대한 이해와 양가적인 평가에 주목한다.

먼저 교사들이 이해하는 콩글리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들은 주로 콩글리시가 표준 영어의 범주에서 어긋나는 오류들을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말행위이기에 언어사용의 규범 상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기며 대체로 포용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러한 포용적인 자세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는 콩글리시를 영어 구사 능력에서의 미숙함으로 보는 경우이다. 실제로 학생들 대부분의 영어능력이 아직 미숙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콩글리시 사용이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식적으로 나타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콩글리시에 대한 포용적 자세는 수업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사소한 실수들을 지적하기보다는 학생

들이 전반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셈이다. 다른 하나는 의도적인 콩글리시로의 전환을 인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내 활동의 맥락에 따라 너무 장난스럽거나 빈도가 심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이를 학생들 나름의 창의적인 말행위로 여겨 묵인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입장에서 교사들은 수업시간 중 콩글리시 사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워요. 또 아이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통해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새로운 단어들과 새로운 방식의 말하기들은 놀랍고 감탄스럽게 느껴져요. 아이들은 이런 방식들로 소통하는 거죠. (Mr. Vick, 5C 담임교사)

학교의 이상적 목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언어를 전환할 수 있는 완벽한 이중 언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어로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감탄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을 키우고 영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껴요. (Ms. Hamilton, ESOL 교사)

이처럼 교사들은 콩글리시의 사용에 대해서는 학생들 ‘자신들만의 언어,’ ‘새로운 말하기,’ ‘언어로 노는 모습’과 같은 표현으로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재치 있고 창의적인 말행위로 여기는 등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콩글리시는 한시적이며 유희적인 행위일 뿐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콩글리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즉, ‘체화되어야 하는’ 언어인 영어의 체화를 돕는 기능을 지닐 때에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그대로 체화되어 버리면 가치를 잃게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학생들 중 몇몇은 교사들의 이러한 포용적인 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콩글리시를 수업 상황에서 언어 사용 규범에 어긋나는 말행위를 통칭하는 범주로 표현하기도 한다.

<사례 9>

혜미(여): Mr. Crane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현아(여): 아니야 나도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다시 하랬어.

인턴교사(여): Girls, maybe we should speak English. Don't you think?

현아: We speak Konglish. (웃음)

위 사례에서 학생들은 인턴교사의 지적에 자신들의 말하기가 ‘콩글리시’라고 둘러댄다. 전반적으로 인턴교사에 대해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권위가 약하며 친근한 어른으로 여긴다. 실제로도 세 학급의 담임교사들이 모두 30대 이상의 외국인 남성으로 학생들의 언어 사용 규범의 준수를 엄하게 지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두 명의 인턴교사들은 20대 초중반의 외국인 남녀로 학생들의 규범 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며 부드럽게 타이른다. 이에 학생들은 특히 담임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최대한 수직적인 언어행동을 통해 규범적 언어사용을 실천하려 노력하지만 인턴교사가 곁에 있을 때는 언어 사용에서의 조심스러움이 덜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아는 인턴교사의 지적에 장난스럽게 대응하며 자신들의 규범 위반을 콩글리시 사용으로 가장한다. 이는 현아가 콩글리시가 교사들에게 용인되는 말하기 양식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화용론적인 가치에 반해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콩글리시에 대한 언어 태도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였는데, 학교생활, 또래 및 가족관계 등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사용과 관련한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다가도 구조적 인터뷰의 맥락에서 언어에 대한 인식 또는 설명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거나 짧게 대답하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였다. 특히 콩글리시와 관련한 대화에서 이러한 모호한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콩글리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면서도 대체적으로 한국사회에 담론적으로 형성된 콩글리시의 ‘부적절함,’ 또는 ‘미

속함'과 같은 특징을 그대로 수용하며 이를 잘못된 영어 사용으로 묘사한다. 다음의 사례는 한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사례 10>

연구자: 콩글리시는 어떤 것 같아? 편하거나 좋거나 싫거나?

지민(여): 아빠가 하는 영어요. It's 좀 쪽팔려.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지민은 아버지와 함께 담임교사를 만난 학부모 면담에서 담임교사와 대화하는 아버지의 실제 영어 구사능력을 떠올리며 이와 같이 표현한다. 이처럼 콩글리시는 실제 혹은 상상된 한국인 영어 화자의 미숙한 영어 구사능력과 등치되어 '부끄러운,' 심하게 말하면 '쪽팔리는' 영어 사용의 형태로 인식된다. 콩글리시 화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국제학교 학생으로서 자신들의 일상적인 영어 사용의 방식이 콩글리시와 동일시되는 것을 경계하게끔 만든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태도가 잘 드러난 경우일 것이다.

<사례 11>

나희(여): So, we are completed[kæmplitidu] whole se-tting[se-tɪŋ].

가은(여): Whole se-tting[se-tɪŋ]? (웃음) Konglish Ajumma. Ray, you are such Konglish Ajumma.

나희: (정색하며) 아니거든!

위 사례에서 나희는 수업 중의 조별활동 과정에서 장난스러운 표정과 어조로 “completed whole setting”의 발화에 있어 ‘completed’ 음절의 끝에 /u/를 삽입하고 ‘setting[setɪŋ]’을 길게 늘여 말하는 방식으로 콩글리시를 구사한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가은은 웃음과 함께 나희의 콩글리시에 대해 장난스럽게 놀리려는 의도로 나희를 콩글리시 아줌마라 칭한다. 이때에 장난임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나희는 콩글리시 아줌마라는 표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은 국제학교 학생으로서의 영어 구사능력이 한국인 아줌마의 콩글리시와 동일시되는 표현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추측된다. 즉, 학생들에게 콩글리시와 자신의 영어능력이 등치되는 상황은 다른 한국인들 보다 우수한 영어구사능력을 지녀야 할 국제학교 학생의 이미지가 위협받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콩글리시가 친밀감의 표현 혹은 웃음 유발과 같은 긍정적으로 기능의 말행위로 여겨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콩글리시가 화자 자신의 체화된 언어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친구들끼리의 대화상황 내 영어 구사에 있어서 미숙한 한국인의 목소리를 재현하고 있다는 전제가 화자와 청자 간에 암묵적으로 동의되는 경우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말행위를 고프먼(Goffman 1981)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때에 콩글리시 화자는 풍자적으로 자신이 아닌 한국인 영어 화자를 연기하는 연출자(animator)¹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또한 이를 바흐친(Bakhtin 1984)의 이중성(double voicing)의 개념으로 연결하면 흉내내기(mocking)(Basso 1979), 패러디(parody)(Sclafani 2009), 또는 성대모사(mimicry)(Park 2013)의 맥락에서와 같이 콩글리시라는 과장된 말하기 양식은 한국인의 영어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미숙함’이라는 특징을 자아와 타자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유희적으로 차용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 콩글리시는 이를 공유하는 한국인 또래집단의 소속감에서 비롯된 말하기 양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콩글리시 사용자를 타자화하고 부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과 차별되는 자신들의 국제학교 학생으로서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언어자원으로서 콩글리시의 가치는 ‘체화되지 않은(disembodied)’(Kang 2012; 강윤희 2014) 언어자원일 때에만 인정되며, 실제로 자신의 영어 구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관계없이 이들은 콩글리시가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개인의 내적인 부분으로 ‘체화’된 언어자원으로 여겨지기를 거부한다. 콩글리시는 어디까지나 체화되지 않았기에 한정된 상황에

10) 고프먼(Goffman 1981) 개념의 번역은 최진숙(2005)이 고프먼(Goffman 1974)의 참여자 구조(participant structure)를 인용하며 사용한 번역을 참조하였다.

서 의식적이며 의도적으로 구사할 때에 가치 있는 언어자원인 것이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담론 수준에서 인식되는 콩글리시의 의미와 상호작용의 실천에서 나타나는 콩글리시의 의미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의 배경에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표준 영어 이데올로기의 거시적인 담론이 투영되는 콩글리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엄격한 영어 사용의 규제 아래서 일상적으로 또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또래언어로서의 콩글리시라는 국제학교의 맥락이 존재한다. 달리 말해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콩글리시는 잘못된 영어 혹은 친구들 간의 또래언어라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지닌 언어자원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는 학생들 나름의 전략적인 절충과 선택에 의해 계속해서 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6. 결론

이상으로 한국의 국제학교 학생들의 수업 내 콩글리시 사용의 언어적 특성, 비지시적 기능에 대한 분석과 언어태도를 고찰함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콩글리시를 활용하고 평가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학생들의 콩글리시를 구성하는 언어적 특질들을 살피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변형되며 재구성되는 콩글리시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이어서 학생들이 구사하는 콩글리시의 전략적 활용의 측면을 기술·분석하였고, 콩글리시로의 전환을 통해 전달되는 비지시적 기능으로서 비공식성·친밀성의 상황변이어와 웃음유발의 말놀이로서의 기능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국제학교 학생들은 콩글리시로의 전환을 통해 진지한 분위기를 가볍게 전환하거나 즉흥적으로 웃음의 유발을 의도하는 말놀이를 연행하며, 이러한 콩글리시의 활용은 영어 사용규범이 강조되는 국제학교의 맥락에서 한국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소속감과 유대감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담론적 차원에서 콩글리시의 의미

와 상호작용적 실천의 차원에서의 의미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실천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콩글리시의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담론적 차원에서 학생들은 콩글리시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지배적인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부정적인 가치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양가적인 태도를 들여다보면 국제학교에서 콩글리시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적, 맥락적으로 추동되고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한국이라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세계화가 포용되는 양상에 대한 언어인류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 행위자들인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콩글리시의 의미에 주목해 보았다.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말 사례를 탐구함으로써 어휘 중심의 분석, 인식 조사가 주가 되었던 기존의 정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기초적으로나마 실제 콩글리시 말행위를 분석함으로써 화용론적, 민족지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한계는 하나의 국제학교에서의 사례라는 특수성에 있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제학교들이나 어학원 등의 영어교육기관, 영어 사용이 일상적인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 등 한국사회 내에서 영어가 실제 의사소통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다양한 현장에서의 언어사용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콩글리시 외에도 한국사회 내에서 영어가 중요한 언어자본으로서 상품화되고 활용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6년 5월 30일, 논문심사일: 2016년 7월 2일, 게재확정일: 2016년 7월 10일

참고문헌

강나영

2015 “어린이 ‘동음이의어 말놀이’(pun)의 구조 및 내용적 특성에 대한 사회언어

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23(1): 1-30.

강윤희

2014 “언어자원과 언어능력의 재구성: 싱가포르 한국 조기유학생들과 동반 가족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20(1): 87-118.

구현정

2002 “말실수의 유형 연구: 대중매체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0(2): 1-24.

김연주 · 이진수

2014 “L2 영어어휘습득을 위한 언어적 자산으로서의 Konglish에 관한 연구,” 『언어학』 22(4): 359-385.

김용진

2012 “상황 변어어” 『사회언어학 사전』, 한국사회언어학회, 서울: 소통.

김해연

2007 “콩글리시 어휘의 유형과 형성의 인지적 동기,” 『담화와 인지』 14(3): 25-52.

심재형

2016 “한국인 TESOL 대학원생들의 한국식 영어에 대한 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석사학위논문.

왕한석

1996 “언어·사회·문화: 언어 인류학의 주요 조류,” 『사회언어학』 4(1): 3-50.

최셋별

2003 “한국 사회에서의 영어실력에 대한 문화자본론적 고찰: 대학생들의 영어학습 실태와 영어능력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11: 5-21.

최진숙

2005 “과테말라 마야 정체성의 이데올로기적 형성: 코드전환에 의한 언어적 편견의 재생산,” 『한국문화인류학』 38(2): 3-28.

Agha, Asif

2007 *Language and Soci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hn, Hyejeong

2014 “Teachers’ Attitudes towards Korean English in South Korea,” *World Englishes* 33(2): 195-222.

Bakhtin, Mikhail

1984 *Rabelais and His World*, translated by H. Iswolsk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Basso, Keith

1979 *Portraits of "the Whiteman": Linguistic Play and Cultural Symbols among the Western Apach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urdieu, Pierre

1977 "The Economics of Linguistic Exchanges," *Social Science Information* 16: 645-668.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Polity Press.

Bhatt, Rakesh M.

2002 "Experts, Dialects, and Discours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2(1): 74-109.

Crystal, David

2003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rvin-Tripp, Susan

2001 "Variety, Style-shifting, and Ideology," in P. Eckert and J. R. Rickford, eds., *Style and Sociolinguistic Var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4-56.

Ferguson, Charles A.

1959 "Diglossia," *Word* 15: 325-340.

Fishman, Joshua A.

1967 "Bilingualism With and Without Diglossia; Diglossia With and Without Bilingualism," *Journal of Social Issues* 23(2): 29-38.

Goffman, Erving

1981 *Forms of Talk*,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Heller, Monica

2003 "Globalization, the New Economy, and the Commodification of Language and Identity," *Journal of Sociolinguistics* 7(4): 473-492.

2010 "Language as Resource in the Globalized New Economy," in N. Coupland, ed., *The Handbook of Language and Globalization*, Malden, MA: Wiley-Blackwell, pp. 349-365.

Irvine, Judith T.

1979 "Formality and Informality in Communicative Events," *American Anthropologist* 81(4): 773-790.

Kachru, Braj B.

1986 *The Alchemy of English: The Spread, Functions, and Models of Non-native Englishes*, Oxford: Pergamon Institute of English.

Kang, Yoonhee

2012 “Singlish or Globish: Multiple Language Ideologies and Global Identities among Korean Educational Migrants in Singapore,” *Journal of Sociolinguistics* 16(2): 165-183.

Kent, David B.

1999 “Speaking in Tongues: Chinglish, Japlish and Konglish,” *KOTESOL Proceedings of PAC2*: 197-209.

Lawrence, Bruce C.

2012 “The Korean English Linguistic Landscape,” *World Englishes* 31(1): 70-92.

Mufwene, Salikoko S.

2010 “Globalization, Global English, and World English(es): Myths and Facts,” in N. Coupland, ed., *The Handbook of Language and Globalization*, Malden, MA: Wiley-Blackwell, pp. 31-55.

Nam, Hyunjeong

2010 “Konglish, Korean L2 Learners’ Unique Interlanguage: Its Definition, Categories and Lexical Entrie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6(4): 275-308.

Park, Joseph Sung-Yul

2009 *Local Construction of Global Language: Ideologies of English in South Korea*, Boston, MA: De Gruyter Mouton.

2010 “Naturalization of Competence and the Neoliberal Subject: Success Stories of English Language Learning in the Korean Conservative Press,”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20(1): 22-38.

2013 “Stance, Style, and Vocal Mimicry,” *Journal of Pragmatics* 53: 84-95.

Park, Joseph Sung-Yul and Lionel Wee

2009 “The Three Circles Redux: A Market-Theoretic Perspective on World Englishes,” *Applied Linguistics* 30(3): 389-406.

Sclafani, Jennifer

2009 “Martha Stewart Behaving Badly: Parody and the Symbolic Meaning of Style,” *Journal of Sociolinguistics* 13(5): 613-633.

Sherzer, Joel

2002 *Speech Play and Verbal Ar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Shim, Doobo and Joseph Sung-Yul Park

2008 “The Language Politics of “English Fever”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48(2): 136-159.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08 “콩글리시” <http://stdweb2.korean.go.kr/main.jsp>(검색일: 2016년 2월 19일)

〈Key concepts〉: international school, Konglish, linguistic resource, register, speech play

Linguistic Properties and Social-Contextual Meanings of Konglish in a Korean International School

Jo, Jay*

This study explores Korean students' linguistic practices and diverse meanings of Konglish -a local variety of English in Korea- in a Korean international school. While the majority of the student population in the school is composed of Korean locals, English is the official language as the language of instruction. Under the class environment where English use is restrictively imposed, Konglish is a linguistic resource/speech style that Korean students can employ situationally and strategically to secure informal and furtively intimate social space of their own. In this context, I apply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as a primary theoretical basis to disclose the meanings and values of Konglish in the school. This study first describes linguistic features of Konglish distinguished from the properties of standard varieties of English observed in actual speech scenes. Secondly, I analyze how students appreciate Konglish in their strategic practices by suggesting two primary functions; 1) the register of informality and intimacy, and

* Researcher,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 means and sources of speech play. Lastly, I examine the ambivalence in students' language attitude about Konglish at the level of interactional practice and the level of discourse, as students indicate negative frames on Konglish under the hegemony of Standard English ideology.

